



# 신서체 - (주)직지소프트의 신영복체 등 23종

## 자연 친화적인 느낌 강조

(주)직지소프트(대표 이중화)가 최근 캘리디자인 본문 서체인 신영복체를 비롯해 디자인 서체 23종을 개발했다.

지난 3년간 SM 서체(신명서체)를 제조 명해 TT(True Type Font)·PS(PostScript) 서체로 출시되는 이번 제품 개발로 인해 그동안 BitMap(화면용 서체) 서체 밖에 없어 사용의 폭이 제한됐던 서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영복체 등 신서체 23종의 개발에 참여한 인원은 15명. 디자이너와 타이포그래픽 전문교수,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 편집 디자이너와 아트 디렉터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많은 교정 작업과 검수를 통해 완성도 있는 본문 서체가 개발됐다.

이번 출시의 주력 폰트로 평가받는 신영복체는 지금까지 접해왔던 붓글씨 서체와는 다르게 한자가 포함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글꼴 모양은 붓 터치 기법과 꼴의 어우러진 모양, 선의 굵기, 먹의 농담과 태세가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1968년도에 구속돼 20여 년이 지난 1988년도에 출소, 옥고를 겪으면서 붓글씨 공부를 스스로 터득해 개발한 필법이다.

신영복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서간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판본흘림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어우름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개구쟁이M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자유여행M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타임머신M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탈네모M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해바라기M	진달래 꽃길따라 불타는 단풍따라

(주)직지소프트가 최근 개발한 신영복체 등 디자인 서체 23종

또 글꼴의 기본 3대 원칙인 균형감, 조화로움, 미려함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개발 초점을 맞췄다. 신영복 교수는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재임 중에 있으며 서체에 자연 친화적인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어 서체 고유의 폭과 깊이를 쉽게 짐작할 수 없다는 평이다. 또 하나의 캘리디자인 서체는 예광 장성연 선생이 개발한 어우름·판본흘림·서간체 등 3종이다. 어우름체는 자간 흘림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살려 글자와 글자끼리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기법으로 초, 중, 중성

으로 이뤄진 한글의 자연스러운 융합과 조화를 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판본흘림체는 판본체를 흘려서 쓰는 기법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배제하고 편안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 마치 산에서 흐르는 물이 계곡 하단에서 만나는 지점과도 같은 느낌을 지니고 있다. 서간체는 과거 붓으로 편지를 쓸 때 사용되는 서체로 자연스러우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현됐다.

이밖에 디자인서체는 탈네모형·개구쟁이·자유여행타임머신 등 총 23종이 개발됐다.



## 롤 세정제 - 에버텍의 EverClean 770

# 친환경 잔류 잉크 제거제

셀 깊숙이 파고든 잔류 잉크를 완벽하게 제거해 인쇄 시 더욱 깨끗한 망점 재현을 실현할 수 있는 세정제 (EverClean 770)가 출시됐다.

VBC(액체질소용 진공배관 system)와 Special Lamp 등 신소재 개발 전문업체인 에버텍(대표 한익수)이 친환경 산업용 세정제와 페인트&잉크 제거제 전문 제조업체인 미국의 Solvent Kleene사로부터 독점 공급받고 있는 'EverClean 770'은 기존에 출시된 아날록스 세정제보다 완벽한 세정력을 자랑한다.

이 제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까지의 기존 세척제들이 아날록스를 셀 속에 말라붙어 있는 마른 잉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유성에 비해 수성용 잉크는 가교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랐을 때 제거하기가 더욱 어려워 셀의 볼륨을 원래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EverClean 770'은 유·수성을 가리지 않고 크롬 도금 롤은 물론 세라믹 롤의 마른 잉크까지 모두 제거가 가능하며, 비 부식성이어서 아날록스 롤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인쇄 전, 후 공정 어느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초음파세척 및 소다·아이스 블래스팅 등의 세척 과정이 필

에버텍이 공급하고 있는 'EverClean 770'. 기존에 출시된 아날록스 세정제보다 완벽한 세정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성을 이용한 기술을 접목했다.



요가 없어 세척 작업을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할로젠 원소와 오존층 파괴물질의 주범인 CFCs 포함하고 있지 않고, 증발 속도를 최대한 늦춰 공기 오염도를 현저히 낮췄으며, 발암성 물질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친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적용 가능한 소재는 고무를 제외한 세라믹, 크롬, 철(탄소강,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등으로 다양한 재질에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물과 4~5배의 비율로 희석시켜 사용하며, 고무에도 적용 가능한 수성 세정제 'EverClean 660'도 동시에 출시됐다.

### 〈세척과정〉

- 1) 롤을 천천히 회전시켜 가면서 'EverClean 770'을 롤의 전체 표면에 충분히 바르거나 담금조에 담근다.
- 2) 셀에 묻어 있는 잉크가 녹을 때까지 6~7분간 기다린다.
- 3) 이 때 아날록스 롤 전용 스테인리스 스틸 브러시나 나일론 브러시로 문질러주면 세척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세척포에 잉크 자국이 묻어 나지 않을 때까지 문히고 닦는 과정을 반복한다.
- 4) 마지막으로 세척포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낸다.



## 오프셋 인쇄기 - 하이델베르그의 스피드마스터 XL105

# 생산성 탁월, 시간당 1만8천통 인쇄

하이델베르그사가 최근 차세대 매엽 오프셋 인쇄기 스피드마스터 XL105를 출시했다. 스피드마스터 XL105는 뛰어난 생산성, 품질 및 비용 효율성과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결합한 최신형 인쇄기다.

스피드마스터 XL105는 기존의 인쇄기보다 큰 75×105cm의 용지 규격과 시간 당 1만8천통의 최대 속도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매엽 오프셋 인쇄기이다. 잉킹 유닛 및 습수 시스템, 코팅 유닛의 혁신으로 보다 빠른 작업 준비 시간과 어떤 속도에서도 높은 인쇄 품질이 가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혁신적 급지부. 스피드마스터 XL105의 급지부는 최대 초당 5매씩 분리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급지가 이뤄지도록 설계되었다. 용지 분리 기능의 경우 파일에서 급지대로의 이동이 매우 부드럽고 정확히 수행된다.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석션 헤드가 자동으로 제어 시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인쇄기 속도가 증가할 경우 정량의 공기가 적시에 투입된다. 다단계 2매 용지 점검 방식으로 두 장이나 여러 장이 겹쳐 들어가거나 손상된 용지가 인쇄기에 투입되어 핵심 부품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하이델베르그사가 출시한 차세대 매엽 오프셋 인쇄기 스피드마스터 XL105. 스피드마스터 XL105는 기존의 인쇄기보다 큰 75×105cm의 용지 규격과 시간 당 1만8천통의 최대 속도를 제공한다.

특수한 제품을 위한 유연성도 최대로 보장한다.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는 튼튼한 인쇄 유닛을 들 수 있다. 시간 당 1만8천통의 속도에도 최소한의 진동으로 정확한 핀 맞춤 작업을 위해 특수한 측면 프레임을 갖춰 최대의 강도를 보장하며 인쇄 품질을 최적화한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잉킹 및 습수 시스템인 하이컬러는 작동 시작 시의 손지 절감, 솔리드 인쇄 영역에서도 높은 품질의 인쇄 가능, 어떠한 속도에서도 선명한 하프톤 망점, 높은 콘트라스트, 잉크 주입 장치의 빠른 반응 등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을 제공한다. 하이컬러를 이용하면 바리오 시스템, 표준

및 빠른 잉킹 유닛, 다양한 진동 롤러 주기 설정, 잉킹 폼 롤러의 배열을 프리넥 CP2000 센터를 통해 손쉽게 작동할 수 있다. 하이컬러는 어떤 속도에서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새롭고 극히 안정된 잉킹 및 습수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배지부 역시 전면 재 설계되었다. 새로운 그립퍼 바의 특수한 모양으로 바 앞뒤의 공기 진동이 거의 제거된다. 고속에서도 용지 날림이 없어지고 용지 이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사전 설정에 가해진 모든 변경 사항은 저장되기 때문에 반복 작업 시 재 사용할 수 있다.



## 무현상 CTP 판재 - 아그파의 아주라

# 안정적이고 편리한 친환경 무현상 판재

아그파코리아는 최근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아그파의 무현상 CTP 판재인 아주라를 국내에 선보였다.

무현상 CTP 판재인 아주라는 고유 기술인 서모퓨즈 (ThermoFuse)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미 서모라이트라는 제품으로 상용화 검증받은 기술로 일반 CTP에서 화학적으로 처리되는 공정을 물리적으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현상 및 고무액 처리(거밍) 과정을 통해 판재를 생산하는 일반 CTP와는 달리 현상 과정 없이 고무액 처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아주라의 가장 큰 이점은 현상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를 대폭 감소시켰다는데 있다. 현상기 속도, 약품 조건, 온도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상기 유지 보수 및 약품 관리에 필요한 인력 절감 효과, 그리고 적은 약품 사용량에 따른 친환경 특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또한 아주라는 다른 디지털 판재보다 훨씬 넓은 관용도를 갖는다. 넓은 관용도라는 의미는 레이저 파워나 현상기 등의 설정 조건을 세심하게 조절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이는 망점 형성의 물리적 특성이 현상 시스템의 화학적 특성보다는 관용 범위가 훨씬 넓은 데서 기인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번 설정된 망점 크기는 노광을 더 오래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도트게인 현상으로 인해 50% 노광된 망점은 일반적으로 약 56%로 생성되는데 아주라는 더 많은 노광을 하더라도 이 범주를 넘지 않는다. CTP 무현상 공정은 일반 CTP 공정과 비교해 프리히팅 과정, 프리워시 과정 그리고 현상 과정이 없어지면서 공정이 대폭 축소된다.

